

통일 칼럼

전시작전권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안보 압박과 맞물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평시와 전시의 작전권을 모두 받아 오자는 주장을 처음 했고, 논의가 진전돼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의 작전통제권만을 받아 왔다.

현재 한국군은 유사시 전투 준비 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된다.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시 상황에서도 한국군이 군사 지휘

권을 갖게 된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전환 시기가 계속 늦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 조건 충족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무기한 연기됐다.

그런데 이 전작권 문제가 최근 수면 위로 다시 급부상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안보 압박 속에서 전작권 전환이 위성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방위비 문제와 패키지로 묶여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한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을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고, 안 후보자의 발언 역시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쪽에선,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국군통수권자가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다.

또,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새로 짜려 하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감축과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한다.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크게 3가지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의 대북 감시 정찰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최소한도로 확충하고, 독자적인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만 필요한 비용은 약 2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현재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해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조건의 충족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서 논의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를 다각도로 고려하며 신중하고 철저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붕지에 담긴 물 사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최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폭염 속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붕지에 담긴 물을 사고 있다.

군사 훈련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최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661계호여단 소속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설

소상공인들의 세금 차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묶이면서 세금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규모나 매출이 비슷한 점포라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는 세금 차이가 큰 곳이 적지 않다.

전주시 중화산동에는 어은로를 사이에 두고 선술집이 마주 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매장 규모는 10여 평 남짓 비슷하다. 상반기 매출도 A가게는 5,000만원, B가게는 4,000만원이다.

두 점포 모두 연매출 1억원이 안 되는 영세 간이과세 사업장이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액을 보면 B가게는 한 톨도 안 낸 반면 A가게는 138만원에 이른다. A가게가 위치한 어은로 우측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월 10만 원 가량 저렴하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세 부담은 100만원가량 더 크다. 전주지역의 간이

과세 배제 지역은 10곳으로 16년 전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정했다.

특정 상권이 당시 지정 요건이었지만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카드 사용으로 매출이 투명해지고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상권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16년째 요지부동이다.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은 연매출 1억400만원, 실수익이 아닌 3,000만원이 안 돼 사실상 1인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다를 없다.

물론 부가세 개념은 손님이 낸 세금을 업주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는 간접세지만 1만 원짜리 국밥이나 5,000원짜리 커피를 사고파는 손님이나 업주 모두 부가세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점포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제8회 소안화목회전

제8회 ‘소안화목회전’이 2025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전북 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바람을 그리다’로 참여 작가 66명은 부채 위에 그림을 그렸다.

예로부터 부채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풍류와 멋을 담아내는 예술의 매개체였다. 이번 소안화목회전은 전통의 아름다움 위에 문인화의 정신과 감성을 다해 부채 그림을 선보였다는 자평(自評)이다.

제1회 소안화목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교동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제2회는 2019년 10월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그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트제 깔러리, 청춘깔러리카페,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해마다 전시회를 가졌다.

2025년 올 여름은 무더위 덥고 따갑기만 했다. 하지만 ‘소안화목회’ 회원들은 ‘한 술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올 한 해도 몸부림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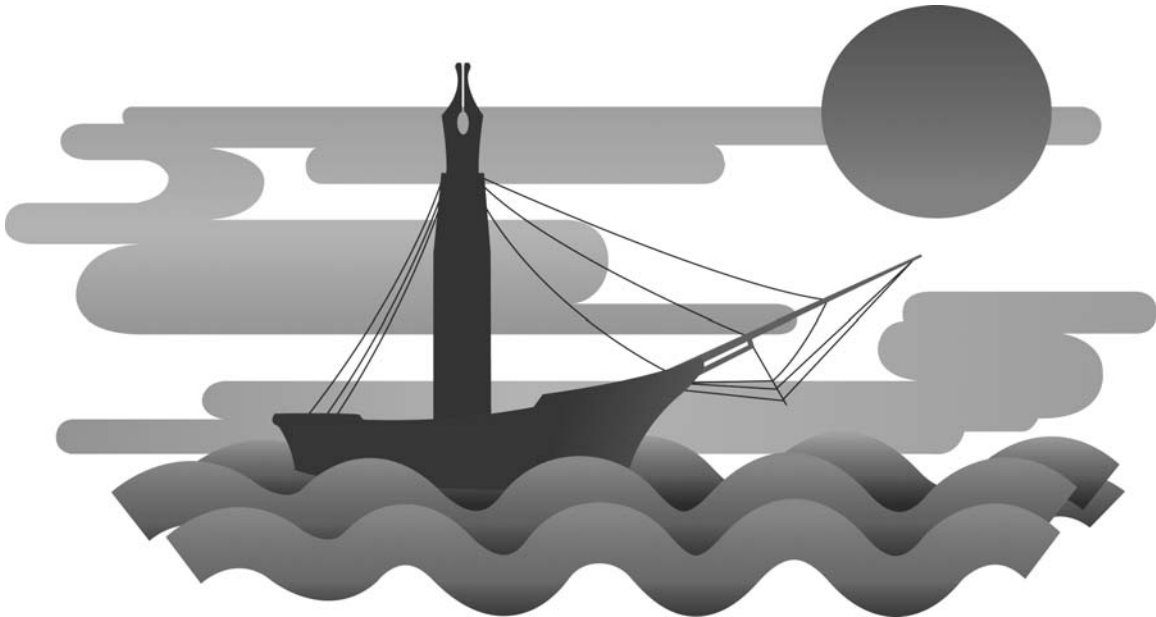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이들의 꿈은 저마다 다르다. 문인화에 대한 자질과 소일도 다르다. 붓을 잡았던 연륜도 다르다. 여러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전은 다양성이 있다.

이들은 붓을 들고 국화 한 송이나 대나무 한그루를 그리면서 옛 선인들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 한편 소안당 김연 지도교수는 원광대 서예과를 졸업했다. 서울, 전주, 익산에서 개인전 14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서연회, 한국문인화연구회, 마음그림, 강암연목회, 한국청년서단 회원이다. 전북대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출강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회원들 모두 문인화의 세계에서 한 걸음씩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